

소설의 수사적 읽기 교육 연구를 위한 시론(試論)

홍인영*

Ⅱ 차례 Ⅱ

- I. 서론
- II. 수사적 읽기의 이론적 탐색
- III. 소설교육과 수사학
- IV. 소설의 수사적 읽기 교육 방법
- V. 결론

【국문초록】

이 연구에서는 소설 읽기가 지닌 수사적 측면에 주목하여 관련 이론을 살피고 소설의 수사적 읽기 교육 방법을 모색한다. 소설에 대한 수사학적 접근은 소설 텍스트를 담화의 질서로 보고 독서 행위의 소통적 구도에 주목하여 학습독자가 적극적인 참여자로서 문학 작품을 수용하는 것을 지향한다. 학습자는 소설의 수사적 읽기를 수행하면서 저자의 의도가 담긴 텍스트의 구조와 화자의 언술 방식에 대한 탐색을 통해 주관적·정서적 반응을 일으키고 언어 자질을 중심으로 자신의 소설 해석에 구체적인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

소설의 수사적 읽기는 첫째, 소설을 작가의 치밀한 전략에 의해 설계된 구조물로 보고 독자가 비평적 관점을 취하며 미적·정서적·윤리적 판단 과정을 거쳐 텍스트의 의도를 고려하며 해석하는 수사적 형식 탐구이자 둘째, 언어 예술인 소설 텍스트가 지닌 다원성에 기반하여 개방된 해석을 지향하는 독서 행위의 수사학적 태도를 의미한다.

소설의 수사적 읽기의 이론적 근거로 수사학과 해석학, 해체론을 살폈으며 소설교육의 근간을 이루는 서사학에서의 수사학 논의와 현행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서의 수사학적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박사과정 수료

접근 양상을 탐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제안한 소설의 수사적 읽기의 방법은 ‘텍스트의 특성 및 의도 탐구로서의 수사 읽기’, ‘텍스트와의 경쟁에 기반한 수사적 읽기’, ‘불가능한 독서를 시도하는 해체적 읽기’의 세 가지이다.

주제어: 소설 교육, 소설의 수사적 읽기, 서술자, 독자, 서사 소통, 텍스트의 의도, 텍스트와의 경쟁, 독서 불가능성

I. 서론

이 연구는 소설 읽기가 지닌 수사적 측면에 주목하여 관련 이론을 살피고 소설의 수사적 읽기 교육 방법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소설의 수사적 읽기는 학습자가 소설 텍스트의 문제 제기적 특성¹⁾에 관심을 갖고 저자의 의도가 담긴 텍스트의 구조와 화자의 언술 방식 등에 대한 탐색을 중심으로 독서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는 소설에 내재된 수사적 장치를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설 읽기 행위를 수사학적 관점에서 의사소통의 구도로 접근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사적 읽기를 통해 학습독자는 자신의 인지적·정서적 반응, 미적·윤리적 반응을 이끌어내는 텍스트의 작동 방식에 대해 성찰하고 비판할 수 있다.

소설 텍스트를 문제 제기의 구조로 보는 것은 물음을 제기하는 암묵적 질문자(서술자)와 청중(독자)의 존재를 자연스럽게 암시하며, 이 점에서 소설에 대한 수사적 접근은 작가-작품-독자의 의사소통 맥락을 전제한다. 고전 수사학에서 청중은 화자에 의해 변화되기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존재에 불과했다. 이는 문학이론의 역사에서 작품과 독자의 관계를 고찰했던 효용론의 경우 ‘작품이 독자에게 어느 정도 쾌락이나 교훈을 줄 수 있는가’

1) 텍스트는 문제 제기(problématique)의 잠재적 구조를 갖는다(Meyer, 2004:96).

를 문제 삼았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이후 청중의 자리가 새롭게 확보되기 시작했는데, 화자가 독자(청중)의 갈등을 해결해주기 위해 존재한다는 입장으로 바뀌었다. 이제 독자는 화자의 에토스나 메시지 자체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으며, ‘수사가로서의 청중(Audience as Rhetor)’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하였다. 롤랑 바르트의 ‘저자의 죽음’에서부터 미셸 푸코의 담론까지 이어온 논의를 고려했을 때, 저자의 자리는 물론이고 메시지나 텍스트도 불안한 것이어서 그 불확정성과 미결정성의 자리에 독자가 위치하게 되었다(우찬제, 2005:361-362). 이때 필요한 것이 수사적 읽기이다. 독자는 서사의 배후에 있는 감수성의 실체(Abbot, 2010:198)인 내포저자가 선택하고 구성한 작품을 분석하여 소설 텍스트의 수사학적 특성을 이해하면서 능동적으로 텍스트를 해석할 수 있다.

수사적 읽기는 언어의 설득적 활용에 대한 기술(記述), 분석, 해석, 가치평가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비평 행위에 가깝다. 비평가는 메시지를 주의 깊게 검토함으로써 추정된 지식을 검증된 지식으로 변화시킨다. 모든 메시지는 진술함과 동시에 수행성을 가지며, 그것을 생산한 사회적 상황을 담고 있다. 수사적 읽기를 수행하는 비평가의 관심은 텍스트가 읽히는 맥락 안에서 독자를 향해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에 있다(우찬제, 2005:365-366). 이와 같은 정보는 화자, 텍스트, 독자, 상황, 주제 등이 서로 맺고 있는 관계와 깊은 관련을 지닌다.

이 연구는 소설 독서가 지닌 수사학적 특성에 주목한다. 소설 텍스트는 글쓰기로 인해 드러난 담화이자 외재적 담지체에 기록함으로써 고정되는 담화로서 대화 상황이라면 가능할 화자와 청자(독자)의 직접적인 소통으로부터 벗어나 있다. 따라서 저자의 의도는 더 이상 텍스트의 의미와 합치될 수 없기에 텍스트는 의미론적 자율성(semantic autonomy)을 지닌다. 텍스트의 의미론적 자율성은 의사소통의 테두리를 넓혀 독자의 자리를 창

조하며 독자는 다양한 읽기와 해석의 기회를 얻는다(Ricoeur, 1998:60-67). 소설 읽기의 개방성에 대한 지지는 언어 자체가 지닌 다의성을 긍정하는 수사학의 입장과 맞닿아있다. 언어의 수사성과 비유적 본성은 텍스트의 일의적 해석을 불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열려있는 해석을 곧장 독서의 불가능성과 직결시키는 것은 독단론에 빠질 수 있기에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해석을 허용하는 수사적 읽기를 지향하되 보다 개연적인 읽기가 있음을 인정하는 입장에 서 있다.

소설 독서 상황에서 텍스트가 던지는 질문에 대한 독자의 대답은 또다른 질문을 낳는다는 점에서 이 대답은 단지 “개연적 대답”일 뿐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 그 때문에 마치 그리스의 아고라에서처럼, 중요한 것은 다양한(상반된)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장, 그 공간에서 열린 대화가 진행되는 ‘과정’이다. “묻고 대답하는 과정”, “계속적인 물음들”(박치완, 2009:167)을 본질로 삼는 관점은 소설 읽기에서 독자의 해석 과정 자체를 존중하는 것으로 연결된다. 이처럼 언어(사용)의 주체성에 대한 반성을 시도한 ‘문제제기론’은 미셸 메이에르가 신수사학을 확장시키면서 촉발되었다. 그는 기존의 철학이 언어를 통해 사유하면서(=묻고 대답하면서) 정작 물음 자체나 사유의 언어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오직 동일성의 논리와 보편주의 내에서 줄곧 대답을 제시하는 데만 몰두했다고 비판한다. 철학은 자기(Soi)와 타인(Autru) 사이에 놓인, 즉 발신자-수신자, 저자-독자, 발화자-발화 상대자를 매개하는 물음을 핵심에 둔다. 더 정확히 말하면 철학은 자기나 타인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물음 자체를 적극적으로 살려 ‘답해 가는 과정’에서 생성되는데, ‘자기-물음-타인’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이 언어이다. 따라서 미셸 메이에르는 ‘묻고 대답하는 과정’을 중심에 두는 것으로 기존 철학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했으며, 철학을 비롯한 인간, 사회, 역사, 심리, 종교 등의 본질적 특성인 ‘차이’가 존중되지 않고 동일성(보편

성)이 특권시됨으로써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이가 실현되는 제 3의 장소(troisième lieu)²⁾로서 ‘물음’이 기능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자기와 타인 사이에 놓인 ‘물음’은 자기와 타인을 새롭게 결부시켜야 하는 ‘문제(problématique)’의 장이며 사물들의 순환과 생산 및 교환이 이루어지는 ‘세계’ 자체이다(박치완, 2009:157-160). 이와 같은 수사학적 관점은 ‘독자의 소설 읽기’를 ‘소설 텍스트가 제기하는 물음에 독자가 대답을 해나가는 과정’으로 보는 데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다. 또한 ‘차이’에 대한 메이에르의 견해는 다양한 관계와 소통으로 이루어진, ‘차이’의 세계인 소설 텍스트의 특성을 존중하며 읽어야 하는 정당성을 부여한다.

Ⅱ. 수사적 읽기의 이론적 탐색

1. 수사적 읽기의 의미

소설 텍스트를 수사적으로 읽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첫 번째 의미는 소설이 지닌 수사적 형식 탐구로서 소설의 구조, 시점, 문체 등을 중심으로 텍스트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는 소설을 작가의 치밀한 전략에 의해 설계된 구조물로 보고, 독자가 텍스트에 거리를 두고 비평적 관점을 취하며 미적·정서적·윤리적 판단 과정을 거쳐 텍스트의 의도를 고려하며 해석하는 것을 뜻한다. 텍스트를 이해한다는 것은 텍스트를 전체로서, 텍스트로서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텍스트를 이루는 문장

2) ‘제 3의 장소’라는 표현을 쓴 것은 수사학의 방법이 모더니스트처럼 철학의 토대를 쌓는 데 열중하거나, 포스트모더니스트처럼 근대의 잘못 구축된 토대를 무너뜨리는 것에 열중하는, 이 양쪽 모두를 부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박치완, 2009:163).

들의 문면만 해독하는 직설적인 독서가 아니라 비유적 의미(signification figurée)를 탐구하는 비직설적 독서³⁾가 필요하다. 독자는 소설의 구조, 시점, 문체 등의 형식을 통해 소설이라는 텍스트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소설텍스트가 제시하는 물음에 답하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나아가 학습독자는 소설의 형식적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자신의 소설 해석의 타당성을 주장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

첫 번째 의미의 수사적 읽기는 기존의 문학교육에 대한 반성으로 행해지는, 문학의 형식적 탐구를 경계하는 경향에 문제를 제기한다. 신비평식 문학교육으로 인해 학습자 개인의 독창적·창의적 해석이 불가능해졌다는 비판이 무색할 만큼 정작 학습자들은 문학작품의 형식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신비평이라는 관점이 문제가 아니며, 신비평적 관점을 문학교실에서 수용하는 방법-기존의 해석의 답습과 일방적 주입-이 문제라는 것을 보여준다. 학습자가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지점은 고정된 해석의 무비판적 수용이지 해석 경로 자체가 아니다. 오히려 문학 고유의 미적 자질에 대한 탐구를 결여한 채 소설을 현실 반영이나 진실의 표현과 같은 본질주의적 관점에서만 보는 관습이 학습자로 하여금 소설을 어렵게 느끼게 하고 문학적 특질을 충분히 향유하지 못하게 한 요인일 수 있다. 이 연구는 문학을 문학으로서 학습하기 위해서는 수사학적 관점에서의 소설 읽기를 학습자가 ‘주체적으로’ 경험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⁴⁾

3) 비직설적 독서는 해석학적 탐구의 목적이다. 비직설적 의미는 직설적 의미들에 의해 내포된 의미이다. 텍스트의 의미는 그러므로 수사적이다. 텍스트는 직설적으로 해석된 구성요소들의 비직설적 해석으로- 즉 전체는 부분들의 총합 이상이다- 작용하며, 근본적으로 제문적(提問的) 방식으로 행동한다. 텍스트는 어느 정도 비유적 의미를 가진 문장으로 기능하는데, 이것은 텍스트가 수사적 효과와 힘을 갖는다는 것을 말한다(Meyer, 2004:97-99).

4) 수사학적 관점과 신비평적 관점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신비평은 작가와 작품을

소설의 수사적 읽기의 두 번째 의미는 소설 텍스트를 해석하는 태도와 방법으로서의 수사학에 주목하는 것이다. 첫 번째 수사적 읽기가 텍스트의 수사성에 초점을 두었다면, 두 번째 수사적 읽기는 독서 행위의 수사학적 특성을 의미한다. 폴 드 만의 이론에 기반 이 입장은 안정된 의미를 찾아가려는 독자의 노력이 텍스트가 지닌 다의적 본성에서 비롯된 독서의 불가능성(unreadability)에 의해 끊임없이 단념되는 현상에 관심을 둔다. 하나의 텍스트에는 전적으로 정합적면서도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무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병존하는 독서들이 있고, 따라서 독자는 “어떤 방식으로든 어느 독서에 우위를 둘 수 있을지에 대해 유효한 결정을 내릴 수도 없다.”(De Man, 2010:27) 모든 읽기를 오독(misreading)으로 보는(McQuillan, 2007:42-45) 드 만의 견해를 따를 때 문학교육은 보다 개방된 해석으로 나아가며 독서 행위 자체를 성찰하고 역동적인 독서 경험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지만, 한편으로는 문학작품의 독서가 그 불가능성 안에서 소멸해버리는 위험도 지닌다. 따라서 두 번째 의미의 수사적 읽기는 텍스트의 의미론적 자율성을 인정하되 텍스트를 경험하는 독자 요인 등의 맥락을 함께 고려하여 느슨한 경계를 지닌 해석을 지향해야 한다.

2. 수사적 읽기의 이론적 근거

이 장에서는 소설 읽기를 수사학적 관점으로 논의하기 위한 이론적 근

분리하여 작품에 내재된 형식을 중심으로 보는 관점이고, 수사적 읽기에서는 작품 생산의 의도와 전략에 비중을 두어 해석한다. 또한 신비평가들은 여전히 문학 작품을 통일성을 갖춘 ‘언어적 성상(聖像)’, 즉 자족적인 의미의 보고(寶庫)로 파악하는 반면, 수사학적 관점에서는 텍스트의 의미가 궁극적으로 불확실하고 비결정적이라고 본다. 다만 수사적 읽기에서 텍스트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추론할 때 작품의 형식을 경유한다는 점에서 형식주의 방법론에 일정 부분 기대는 것이다.

거로서 수사학과 해석학, 수사학과 해체론과의 관계를 살펴보겠다.

1) 이해와 표현의 상호 의존

언술은 사유의 과정을 통해 산출된 내적 결과물일 뿐 아니라 외적 표현 형태를 지닌 전달이다(Gadamer, 2012:32). 이는 문자로 고정된 텍스트에도 적용되는데 모든 텍스트는 기술을 통해 가공된 표현이므로, 텍스트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 안에 이미 언어로 표현된 것을 이해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해석학에서 말하는 ‘깨우침(Einleuchten)’이라는 개념은 항상 말로 표현된 어떤 것이라는 점에서 수사학의 전통에 닿아있으며, 아울러 깨우침을 주는 것은 이미 증명되고 확실한 것이 아니라 가능성과 추측의 범위 안에 존재하므로 이해란 고정된 사실을 찾아내는 행위가 아니라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정해지지 않은 대화라고 할 수 있고 대화라는 언술행위가 개연성(eikos)을 향해 가는 부단한 과정이라고 볼 때(Gadamer, 2012:440) 이해와 표현, 해석학과 수사학은 긴밀하게 결부되어 있다.

가다머는 히틀러가 유대인 학살을 자행한 데 기여한 과학 기술의 발달, 도구적 기술주의를 비판하며 ‘과학의 문화’에서 ‘인간의 문화’로 바뀌기 위해서 수사와 해석의 문화가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수사학은 더 이상 말 잘하는 기술로서가 아니라 텍스트를 읽거나 이해하는 문제로 변형되어야 한다. 그에 따르면 인간의 자연적인 두 가지 능력인 “말하는 능력”(으로서의 수사학)과 “이해하는 능력”(으로서의 해석학)은 상호 전제의 관계에 있다. 말하는 사람은 청중과의 “상호이해”를 이미 전제한다는 점에서 수사학이 해석학을 전제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수사학이 사태의 진리 인식과 분리될 수 없다는 점에서 수사학은 텍스트의 해석을 위해 작용하므로 해석학이 수사학을 전제함을 알 수 있다(정기철, 2008:220-221).

이와 같은 수사학과 해석학의 공존가능성을 토대로 리콰르는 ‘독서의 수사학’을 제시한다. ‘독자’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수용미학의 뜻을 이어받은 리콰르는 독서 행위를 수사학의 영역에 위치시킨다. 이때 해결해야 할 과제는 ‘저자가 설득하는 연설자인가?’의 문제와 ‘작품을 저자의 의도로 보아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리콰르는 전자의 경우 실제 저자가 아닌 ‘내포 저자’의 개념으로 답했으며, 후자에 대해서는 작품 자체의 고유한 의미를 작가의 의도와 동일화할 수는 없다고 대답했다. 해석학의 과제는 “저자로부터 독자에게로, 즉 독자가 작품을 수용하고 그 수용을 통해 자신의 행위를 변화시키는 독자에게로 더 나아가기 위해, 작품을 삶과 행위와 고통의 불투명한 배경으로부터 떼어 내는 사건 전체를 재구성하는 일”이 되었다. ‘이해하는 독자’나 ‘말하는 저자’가 아니라 ‘텍스트에 의해 이해된 독자’, ‘텍스트에 의해 말해진 저자’, 또는 ‘텍스트에 의해 구성된 주체’가 논의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주관이 이해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텍스트의 사실에 의해 구성”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리콰르는 독자가 내포 저자의 설득 전략에 빠져버리고 마는 존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반성하고, 독서의 의미를 성찰하며, 텍스트가 펼쳐보이는 세계에 비판적·주체적으로 응답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정기철, 2008:231-235). 이상의 해석학과 수사학의 상호 영향 관계와 공존은 텍스트를 마주한 학습독자의 독서 과정을 해명하고 학습독자의 해석을 의미화하는 데 이론적 기반으로 삼을 수 있다.

2) 불가능한 독서에 대한 노력

문학이 ‘남김없이 해독될 수 있는 지시적 의미의 단위’를 넘어선다고 보고 일상적이지 않고 두드러지며 복잡적이고 수수께끼 같은 문학의 기호

(De Man, 2010:16)를 읽어내기 위해 수사적 읽기를 주장한 이는 폴 드 만이다. 드 만은 신비평의 자세히 읽기(close reading)나 작품 내재적 비평의 관례들을 수용하면서도 언어와 문학에 대한 관점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그는 문학의 ‘형상적 언어’가 미학적으로 범주화된 문학에 국한되지 않는 언어 일반의 정태에 해당되는 것으로 탈범주화하고 그것이 지니는 함의를 거론한다. 드 만은 문학을 수사로 보았는데 이때 수사는 학술어, 일상어 등에도 상존하는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문학 속에서 어떤 규범적·미학적 전형을 정립하여 일상적 언어와 예술의 언어를 구분하려 했던 신비평과 구조주의 미학과 대립된다. 그에게 수사는 (문학어와 일상어를 모두 아우르는) 언어 자체에 내재하는 것이자 의미를 형성하는 계기이다. 따라서 수행적 수사학을 중심으로 독서와 이해의 문제를 다룬다(De Man, 2010:415-416).

드 만의 독서이론에서 특징적인 점은 해체에 있는데, 그는 문학텍스트의 수사적 양태의 권위를 주장하면서 동시에 부인한다. 독자는 문학작품의 독서를 통해 처음에는 낮설었지만 (독서를 시작하면서부터는) 이해의 행위를 통해 우리 자신의 것으로 만들게 되는 텍스트 안으로 들어선다(De Man, 2010:28). 그러나 이 이해는 단지 저자가 그 문장을 쓰기 위해 우선 시해야만 했던 엄격한 독자(이상적인 내포독자)가 되는 시도일 뿐이다. 문학 저술은 가장 진척되고 섬세해진 해체의 양태(De Man, 2010:34)로서 문학 텍스트의 독서는 끊임없는 시도와 실패 사이를 오고간다.(드 만은 ‘창조적 오독’을 주장한다.) 드 만은 수사학이 모든 독서와 이해의 방식에 극복할 수 없는 장애(De Man, 2010:182)로 작용한다고도 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는 이 장애를 마주하고 끊임없이 독서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게 된다.

수사적 읽기의 근거로서 해체적 읽기 방법이 지니는 의의는 크지만 이

를 전통적인 해석학적 읽기에 대한 총체적 부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기호나 텍스트가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것일지라도 인식 주체는 이해하기를 그만 둘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최성만, 1999:300). 따라서 수사적 읽기의 바탕에 해체론을 둔다는 것은 무정부주의적 해석의 허용이 아닌, 지금까지의 일면적 이해에서 벗어나 보다 포괄적인 이해를 지향하는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

소설은 속이 들여다보이지 않는 심연이자 명확한 형태를 규정할 수 없는 안개와도 같다. 소설 언어는 불투명성(enigma)을 지니고 있으며(De Man, 2008:39) 소설은 필연적으로 완전할 수 없고, 여지(residue)를 남기는 텍스트이다. 이와 같은 텍스트를 읽어내는 데 수사적 방법의 적용이 적합한 근거는 수사학의 근본 특성에서도 찾을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이 존재론의 허점으로 인해 태동했다고 말한다. 로고스가 따라야 하는 것은 ‘있는’ 것이며, 수사학은 ‘있으나 다른 것이었을 수 있는’ 것을 다룬다. 여기에 시간의 맥락이 결합되어 ‘다른 것이었을 수 있는 것’(과거), ‘지금 다른 것일 수 있는 것’(현재), ‘장차 다른 것이 될 수 있는 것’(미래)을 아우르며 다루게 된다. 따라서 ‘있지 않은 것이 여하튼 있을 수 있는’ 상황을 다루는 픽션으로서의 문학을 해석할 때 수사학은 유용한 방법론이 될 수 있다. 수사적 읽기의 대상으로서 소설은 스스로를 정당화하기 위해 텍스트 내적인 논거를 들고(로고스), 독자를 고려하며(파토스), 인정받기 위해 호감을 사거나 조종하는(에토스)(Meyer, 2012:30-32) 복합적인 구성물이다. 학습독자는 소설을 수사적으로 읽어냄으로써 텍스트에 대한 비판적 능력을 갖출 수 있다. 소설의 수사적 읽기는 소설 독서 과정에 내재된 장애를 극복하려는 방식으로, 독자가 어려운 길로 돌아감으로써 보다 풍부한 읽기를 경험하는 데 의의를 둔다.

Ⅲ. 소설교육과 수사학

1. 서사학에서의 수사학 논의

서사학에서 수사학 연구는 소설의 구성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시작한다. 이 소설이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기에 그토록 흥미로운가 혹은 지루한가. 소설의 이야기하기 방식에 대해 플라톤은 디에게시스(diegesis: 시인 자신이 발언자로 이야기하는 방식)와 미메시스(mimesis: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시인 자신이 아니라는 환상을 만들어내는 방식)로 구분했다. 이야기하는 자가 듣는 자를 감응하게 만들고 설득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사의 문제를 최초로 다룬 논의라고도 하겠다. ‘말하기, 설명, 요약’ 대 ‘보여주기, 제시, 장면’이라는 이분법은 소설 비평의 오랜 틀로서 초기에는 헨리 제임스와 러보크를 중심으로 ‘보여주기’를 예찬하는 흐름이 주를 이루었다. 화자에 의해 매개된 목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고 오로지 등장인물의 지각과 의식만이 직접 보고되는 ‘의식의 흐름’ 기법은 이때 등장하였다(김명균 외, 2001:49).

이에 대해 ‘보여주기’에 반기를 든 웨인 부스는 『소설의 수사학』에서 서사는 인물과 사건에 관한 의사소통을 시도하는 의도적 행위라고 말했다. 이 의사소통에서 화자는 독자의 인지, 감정, 가치에 개입하고 영향을 주려고 한다. 부스는 18-19세기 소설가들이 이용했던 작가 논평의 사용을 변호하면서 논평 자체를 옹호하기보다는 논평의 효과성에 대한 판단은 언제나 논평과 특정한 방식으로 독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소설의 전반적 의도 사이의 관계에 의존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언급한 이분법에 따르면 ‘말하기’에 가까운 논평에 대한 이러한 주장은 ‘말하기’와 ‘보여주기’ 중 한 쪽을 지지한 다기보다는 각 서사에 따라 적절한 방법의 선택이 필요함을 말한다. 소설가

입장에서 중요한 선택은 어떤 종류의 수사를 사용하는가, 즉 명백한 논평을 쓸 것인지 혹은 논평을 억제할 것인지, 극적 장면의 제시를 사용할 것인지 혹은 사건의 요약물 사용할 것인지 등이다(Scholes, Kellogg & Phelan, 2007:450-451). 소설의 형식은 서술을 매개하는 화자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수사적 효과이므로 저자가 주제에 걸맞은 서술 방식을 택하면 성공적인 작품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실패하게 된다.

소설의 수사학을 논의하기 위해 부스가 내세운 개념은 ‘내포저자’이다. 내포저자는 실제 작가가 소설을 쓰면서 만들어낸 “제2의 자아”(Booth, 1999:104)를 현실의 저자와 구별하여 가리키는 개념이다.⁵⁾ 내포저자의 규범을 대변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화자를 신빙성 있는(reliable) 화자라고 부르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신빙성 없는(unreliable) 화자라고 부른다(Booth, 1999:217-218). 독자는 내포저자와 화자의 거리를 추론하여 신뢰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 내포저자의 존재, 즉 텍스트 전체의 규범과 의미의 원천을 인지한다.

소설을 읽을 때 소설을 저자의 수사로 보고 내포저자가 화자, 혹은 인물과 어떤 관계를 맺고, 그것이 어떻게 지속되며 그 관계의 효과는 무엇인지 탐색하는 것은 어떤 의의를 지니는가. 이와 같은 탐구는 텍스트를 꼼꼼하게 읽음으로써 가능한데 수사적 독서를 통해 독자는 저자의 미묘한 전략을 이해하고 저자가 이끄는 상상력의 경지를 경험하면서 그동안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영역으로 자신을 넓혀간다(권택영, 2008:8-9). 또한 독자는 텍스트 내부의 상황에 집중하여 내포저자, 화자, 인물 등 서사 소통 구도의

5) 부스가 내포저자라는 개념을 내세운 것은 실제저자와 거리를 두고 객관성을 지향하는 존재를 말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이어지면서 부스는 후기에 자신의 이론에 대해 수정된 입장을 밝히며 실제저자와 내포저자의 연속성을 강조하고 내포저자의 인격화 가능성을 인정했다(최라영, 2013:66-78 참고).

참여자들에 이입하거나 그들 간의 관계 및 거리를 탐구함으로써 텍스트의 미학적 짜임새를 경험하고 서사적 상황에 대한 판단력을 기를 수 있다.

소설을 수사로 보는 관점에서 저자는 자신의 서술 안에서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의사를 전달할까 고심하는 존재이다. 그리고 전달하려는 주제에 적합한 다양한 방식의 화자를 활용한다. 이것은 기표와 기의의 관계를 견고한 것이 아니라 자의적 체계로 보는 구조주의적 언어관에 가까운데, 기표와 기의의 틈새를 한층 더 열어놓은 해체비평에 이르면 언어의 수사성을 강조하면서 언어가 지닌 본래의 미결정성을 토대로 텍스트의 의미를 끊임없이 지연시키게 된다. 해체론의 이러한 입장은 텍스트의 세계가 가치중립적인 실재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를 설득하는 수사라고 하는 부스의 주장과 궤를 같이한다(권택영, 2008:10).

부스의 서사 이론을 토대로 서사의 소통 도식을 제시한 이는 채트먼이다. 채트먼의 도식에서 실제 작가와 실제 독자는 서사적 전달의 바깥에 있고 내포 저자와 내포 독자가 실질적인 주체로 등장한다(Chatman, 2003: 174-179). 채트먼은 화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특징을 식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화자성의 스펙트럼의 양 끝에는 숨은 화자와 드러난 화자가 있는데, 숨은 화자는 독자에게 어떤 인물이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목소리를 분명히 들려주면서도 정작 그 목소리가 누구의 것인지는 드러내지 않는다. 간접화법의 형식으로 표현되는 숨은 화자는 화자의 중개나 해석적 장치를 드러내기는 하지만, 화자의 위치를 정확히 알아내기가 어렵다. 드러난 화자는 복합적 묘사, 시간의 요약, 등장인물이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보고, 논평(Chatman, 2003: 228-323) 순으로 구성된다. 독자는 이러한 소통 구도 안에 위치하여 화자의 위치를 추론하고 텍스트의 서술 전략을 파악함으로써 서사를 흥미롭게 경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수사학적 관점에서의 서사론은 소설 교육에서 소설을 발신자인 작가가 수신자인 독자에게 소통 내용인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작가, 작품, 독자의 소통 관계를 설명하면서 교육 내용으로 ‘시점’ 개념을 제시하고, 학습자로 하여금 서술자의 특성과 그렇게 설정한 작가의 의도 그리고 그에 따른 효과를 파악하도록 하고 있다(정진석, 2014:590-592). 소설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수사학적 접근의 구체적인 양상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살펴보겠다.

2. 교육과정, 교과서에 나타난 수사학적 접근

2009 개정·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중에서 작가, 텍스트, 독자 상호 간의 소통을 전제로 하는 수사학적 관점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 ① 작품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의 관점을 이해한다.(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초 5-6학년군)
- ② 표현에 드러나는 작가의 태도에 주목하며 작품을 이해하고 표현한다.(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중 1-3학년군)
- ③ 작품의 세계가 누구의 눈을 통해 전달되는지 파악하며 작품을 수용한다.(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중1-3학년군)
- ④ 작품에서 보는 이나 말하는 이의 관점에 주목하여 작품을 수용한다.(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중 1-3학년)
- ⑤ 문학 작품에 나타난 작가의 개성을 이해하고 작품을 감상한다.(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국어 I)

위의 성취기준 중 ①, ③, ④은 화자나 시점의 개념을 다루며, 학습자가 ‘작품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과 그 사람의 관점에 따라 작품 속에 형상화된

세계가 달리 나타난다는 점'을 인식하도록 한다. '화자나 시점의 변화에 따라 작품의 분위기와 내용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중심으로 작품을 수용하도록 함으로써 소설 텍스트가 작가가 독자를 설득하기 위한 수사의 성격을 지님을 나타낸다.

성취기준 ②, ⑤는 대상을 바라보는 작가의 태도가 강조되는 반어, 역설, 풍자 등의 표현 방식, 그리고 작가의 고유한 생각과 취향, 가치관, 언어를 구사하는 방법이나 형상화 방법과 관련된 내용이다. 학습자는 작가가 선택하고 활용하는 서사 기법이 작품 전체 의미의 형성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이해하고, 문학 작품이 지닌 고유한 예술적 성취에 주목하여 텍스트를 수용하도록 기대된다. 이상의 내용은 작가의 의도와 독자의 추론이 작동하는 수사학적 소통 상황을 강조하는 것으로 2009 개정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성취기준의 형태로 또는 성취기준의 문면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해설 안에서 확인된다.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이 반영된 교과서를 살펴보면 학습활동이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시점 관련 내용으로는 '이 소설은 여섯 살 어린아이의 눈을 통해 이야기를 전달한다. 작가가 자신을 대신하여 서술자를 어린아이로 정한 까닭이 무엇일지 생각해 보자, 이 소설이 옥희가 아닌 어머니나 사랑손님같은 어른의 눈으로 보고 말하는 소설이었다면 분위기가 독자에게 전달되는 내용의 효과가 어떨지 생각해 보세요.'(남미영 외, 2013)와 같은 질문이 있다. 주로 시점에 따른 서술 현상을 파악하고, 작가가 그런 시점을 선택한 의도를 추론하고, 그에 따라 독자에게 전달되는 효과를 말하는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텍스트의 수사학적 특징의 또다른 요소인 **구성**과 관련해서는 '다음은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배열해 보고, 구성에 따른 효과를 말해 보자.'(김중신 외, 2013), '두 인물의 삶은 무엇으로 연결되고 있는지 생각해 보고, 작가가 이 소설의 구성 방식을 통해 얻고자 한 효과는

무엇인지 말해 보자.’(우한용 외, 2013) 등으로 나타나는데 구성 방식을 파악하도록 하고 시점에서와 마찬가지로 효과를 묻는다. 이는 작가의 개성이 드러나는 문체를 다룰 때에도 유사하여 ‘이 소설에서 지역 방언을 사용하여 얻은 효과를 생각해 보자.’(김태철 외, 2013), ‘이 소설에서 작가의 개성이 잘 드러나는 표현을 찾아보자.’(한철우 외, 2013) 등으로 제시된다. 교과서의 학습활동은 이처럼 텍스트에서 수사학적 표현 방식을 찾고 저자가 사용한 전략이 독자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파악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수사학적 관점이 반영된 교육 내용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학습자의 수행 지점을 명확하게 지시하고 있다. 그러나 텍스트의 수사학적 표현 지점을 파악하는 것에 머물러, 학습 독자가 여기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텍스트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사고의 장을 제공하는 데까지는 미치지 못한다. 이는 소설 읽기 상황에서 독자를 수동적인 존재로 만들 수 있다. 수사적 읽기에서 텍스트의 의도가 드러난 수사학적 표현 기점을 찾는 것은 텍스트 이해의 출발점이며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단계이다. 그러나 그에 대한 독자 자신의 입장을 개진하여 텍스트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단계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소설 독서의 소통은 일방향적 흐름에 그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고는 IV장에서 소설의 수사적 읽기가 보다 확장된 의미 구성 행위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할 것이다.

수사학적 관점에서 교육과정을 살필 때 또한 아쉬운 점은 ‘국어자료의 예’, 그리고 ‘소통’이라는 용어의 쓰임에서 확인된다. 2009 개정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 모두 ‘국어자료의 예’를 들고 있는데 ‘문학 작품’의 목록을 보면 ‘성장 과정의 고민과 갈등을 소재로 한 작품’, ‘다양한 가치와 문화에 대한 성찰을 담고 있는 작품’, ‘또래 집단의 형성과 구성원 사이의 관계를 다룬 작품’ 등과 같이 주제 측면에서 주로 언급하고 있어 작가, 작

품, 독자가 관계하는 소통상황에 놓인 텍스트로서의 성격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또한 시에 대해서는 ‘운율과 이미지가 돋보이는 동시나 노래’/‘운율, 감각적 요소가 돋보이는 시나 노래’, ‘다양한 형식과 표현이 드러나는 시나 노래’/‘비유 표현이 드러나는 다양한 형식의 시나 노래, 글’과 같이 저자가 사용하는 형식에 대한 내용이 있지만 소설에 대해서는 거의 없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물론 ‘국어자료의 예’는 그 자체가 텍스트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 목록에서 저자와 독자가 뚜렷이 드러나도록 제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성취기준에서 언급한 핵심개념을 포함하는 수준에서 소설에 대해서도 서사 전략 차원의 형식적 측면을 포함시켜 제안하면 주제 중심의 목록과 균형을 맞추고, 성취기준과의 일관성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다행히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사건의 전개 과정이나 인과 관계가 잘 드러나는 이야기, 글’, ‘비유, 상징, 운율, 반어, 역설, 풍자의 표현 방식이 뚜렷하게 드러난 작품’이 추가되어 독자를 설득하려는 저자의 의도가 담긴 텍스트로서의 작품을 제시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다음으로 소설 교육의 수사학적 접근에서 핵심적인 개념으로 쓰이는 것이 ‘소통’이라는 용어인데, 국어과 교육과정의 문학 영역에 한정하더라도 ‘소통’은 대부분 학습자와 학습자 간의 의견 교환의 의미로 쓰인다. 예를 들면 ‘저마다 좋아하는 작품은 다를 수 있지만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피고 이를 표현하는 소통의 체험을 통해’, ‘작품에 대한 이해와 감상을 바탕으로 하여 다른 사람과 적극적으로 소통한다, 타인과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등이 있다. 이렇게 되면 학습자는 ‘소통’ 개념이 의견을 나눌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만 쓰인다고 단일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문학교육에서 소통은 사람 사이의 교류뿐만 아니라 작가, 텍스트, 내포저자, 화자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포함한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소통’이 작가-작품-독자의 관계를 가리키는 경우는 ‘문학의 소통에 생산자로

서 참여하는 태도를 지니도록 한다, 작가, 작품, 독자를 둘러싸고 있는 작품의 소통 맥락 또한 작품을 수용할 때 고려할 수 있다, 문학의 생산뿐만 아니라 수용도 문학의 소통활동임을 이해하고'와 같은데, 수사학적 접근이 잘 드러나 있는 부분이지만 '소통'을 타인과의 실제 대화로 보는 경우에 비하면 비중이 적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문학은 심미적 체험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소통 활동임을 알고 문학 활동을 한다.'에서 유일하게 확인된다. 교육과정은 문학작품의 수용에서 소통 주체들 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세분화하고, 학년군에 따라 텍스트 소통과 관련된 교육 내용을 위계화하여 학습자가 소설 텍스트를 마주했을 때 소통 상황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소통 구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IV. 소설의 수사적 읽기 교육 방법

IV장에서 제시할 소설의 수사적 읽기의 방법은 앞서 논의한 수사적 읽기의 두 가지 의미와 해석학 및 해체론에 근거한 읽기를 바탕으로 한 교육 원리의 성격을 지니며, '텍스트의 특성 및 의도 탐구로서의 수사 읽기', '텍스트와의 경쟁에 기반한 수사적 읽기', '불가능한 독서를 시도하는 해체적 읽기'의 세 단계로 제시할 수 있다.

1. 텍스트의 특성 및 의도 탐구로서의 수사 읽기

첫 번째 단계에서 독자는 소설 텍스트를 읽고 텍스트의 특성과 의도를 탐구하고 명료화한다. 텍스트는 독자를 상대로 하여 '읽히는' 텍스트를 만들기 위해 전략을 사용하고, 독자는 자기 앞에 놓인 텍스트를 경험하며 전

락에 넘어가거나 그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비껴가면서 독서를 이어나간다. 독자는 이를 통해 텍스트와의 소통과정에 진입할 수 있다.

소설의 수사적 읽기의 세 가지 방법은 바흐친이 읽어낸 소크라테스 대화의 과정인 ‘검증-경쟁-창조(Testing-Contesting-Creating)’에 바탕을 둔다. 이는 대화적 수사학(dialogical rhetoric)으로서 청자의 응답을 향한 발화, 화자와 청자의 상호작용을 중심에 둔다(Zappen, 2004:41). 본 절에서 다루는 ‘텍스트의 특성 및 의도 탐구로서의 수사 읽기’는 ‘검증’과 관련된다. 바흐친이 말하는 ‘검증’은 화자의 입장에서 행하는 것으로 화자가 자신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어 대화 상대자가 응답하고 반응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단계이다(문선희 외, 2013:376). 소설의 상황에서는 서술자가 서사 구성 방식에 대해 고민하고 여러 가지 전략 중에서 작품을 위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시점의 선택, 사건의 배치, 문체의 사용 등을 결정하는 과정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화자가 행하는 ‘검증’에 대응하는 독자의 행위로서 텍스트의 특성과 의도를 탐구하여 내재된 수사를 읽어내는 것을 첫 번째로 설정하였다.

독자가 파악해야 하는 텍스트의 전략 중 하나는 언어의 선형적 인 구조와 순서에 따른 것이다. 소설은 독자가 책장을 넘기는 행위 안에서만 서사를 보여줄 수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선형구조로 배열된다. 페리는 텍스트의 순서성에 대해 ‘모형 지향(Model-oriented)’과 ‘수사 또는 독자 지향(Rhetorical or reader-oriented)’의 구분을 제시했는데, 텍스트의 순서에 따른 효과는 대상을 충실하게 모방하려는 ‘모형 지향’의 텍스트보다 ‘수사 또는 독자 지향’의 경우에 더 생산적으로 작용한다. 어떤 독서 단위가 다른 단위들보다 더 앞에 위치함으로써 독자에게 미치는 효과가 크고 다양한 것이다. 앞서 제시된 내용에 따라 독자의 이후 이해 방향이나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 초두 효과라는 심리학 용어로도 설명되는데, 독자는 보다 일찍 제공

된 정보나 분위기의 영향을 받아서 이후에 습득하는 다른 정보들을 앞서 습득한 것에 비추어 해석하도록 유도된다. 한편 독자는 독서 과정에서 향후 나오게 될 내용을 예상하면서 읽기도 하지만 이미 읽고 지나간 내용을 되돌아보기도 한다. 이는 독자로 하여금 텍스트의 선형 구조를 따라 제시된 정보들을 가장 최근에 읽은 내용에 동화시켜 최종적인 조정과 통합을 이루도록 한다. 따라서 독자의 사고 안에서 텍스트의 처음 내용, 독자가 예상하는 내용, 지나간 것을 회상하는 내용, 마지막에 배치된 내용 등이 역동적으로 갈등하게 되고(Perry, 1979, 김종구, 1998:181-182에서 재인용), 독자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텍스트의 의미를 추론해낸다.

독자의 텍스트 읽기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이야기를 누구의 시선으로 보고 누가 말하느냐의 문제이다. 예컨대 카프카의 『변신』에서 그레고르는 딱정벌레로 변한 자신의 몸을 침대에서 일으켜 회사 상관에서 사정을 설명할 때에는 행위자의 역할을 맡고 있다가 자신이 벌레로 변신한 현상을 이해하려고 애쓸 때에는 지각자의 역할을 한다. 이 소설은 3인칭으로 서술하고 있지만 사건을 보는 시각은 그레고르의 관점이라는 점에서 독자는 서술된 이야기를 파악할 때 여러 입장을 오고가며 판단을 수행하게 된다(Herman, 2014:98). 독자는 화자가 전달 행위를 통해 눈앞에 보여준 대상에 대해 자신이 기존에 갖고 있던 가치관과 텍스트를 읽는 과정에서 획득한 단서를 통해 판단하며, 이는 독자가 화자와 인물 사이, 또는 내포저자와 화자 사이의 공간(거리)에 대해 탐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2. 텍스트와의 경쟁에 기반한 수사적 읽기

소설의 수사적 읽기의 두 번째 방법은 텍스트와의 논쟁이다. 이는 II장에서 말한 수사적 읽기의 두 번째 의미인 독서 태도로서의 수사학과 관련

된다. 독자가 마주하는 텍스트는 독자가 질문을 던지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기를 기다리며 언제나 독자와 상호작용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소설을 수사학적 관점에서 볼 때 타당성을 따질 수 있는데 이때 타당성이란 소설의 인물이라는 허구적 존재가 그럴듯하고, 독자가 받아들일 수 있고, 실행이 가능한 힘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인물이 점유하고 있는 허구적 세계가 조리 있고, 믿을 만하고, 정말인 것처럼 보여야 한다. 텍스트는 독자로 하여금 텍스트의 존재를 자율성을 가진 발화로 여기도록 하며, 나아가 텍스트를 허구적 서사로 받아들이도록 설득한다(Chatman, 2001:288-289). 작가는 독자에게 자신의 계획을 알리고 그 타당성을 설득시키기 위해 수사학적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텍스트의 설득을 채트먼은 ‘미적 목적을 지향하는 수사학’이라고 설명한다. 미적 수사학의 목적은 껍진성, 창조와 지속, 그리고 환상의 강화에 있다. 그래서 미적 수사학에서의 쟁점은 메시지나 실제 세계와의 연관성이 아니라, 독특하면서도 균질적이고 상상할 수 있는, 그래서 ‘수용할 수 있는’ 상상적 장면이다. 독자는 가치 실현이 가능한 세계에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즉 ‘저자가 독자가 어디에 있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아가게 되며(Chatman, 2001:287) 이때 텍스트의 입장에 대해 끊임없이 의문을 갖고 해석을 추동해나간다.

텍스트와 독자의 상호작용의 과정은 독자가 의미 형성과 관련된 가설을 세우고, 텍스트에 제시된 단서를 통해 가설의 검증을 시도하며, 텍스트의 현상과 가설이 조화 또는 부조화를 이룰 경우 가설을 채택하거나 철회할 것인지를 선택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주네트는 작중인물에 대한 공감이나 적대감은 저자가 작중인물에게 부여하는 심리적, 도덕적 특징들, 그에게 부여된 행동이나 말에 본질적으로 달려있다고 말하며 소설이 저자의 서술 태도에 달려있고 따라서 독자의 가치판단을 근본적으로 요구한다고 말한

다. 같은 맥락에서 부스는 인물이나 사건이 어떻게 서술되는가의 문제는 선택되지 않은 것과의 비교를 통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러한 수사성이 독자의 태도를 결정한다고 한다. 저자라면 누구나 이야기의 형식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펼친다(이경순, 2001:77-78). 이에 대해 독자는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면서 텍스트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자신의 독서 행위에 대한 메타적인 성찰을 수행할 수 있다.

3. 불가능한 독서를 시도하는 해체적 읽기

소설의 수사적 읽기의 세 번째 방법은 해체적 읽기이다. 바흐친의 대화주의 방법 중 ‘창조’에 해당하는 이 단계에서는 대화에 의해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의미가 태어난다. 화자와 청자가 참여하는 대화적 상호작용에서 서로의 생각을 비교하고 일치하거나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확인하면서 새로운 관점의 의미를 창조한다(문선희 외, 2013:377-378). 소설 독서 상황에서는 독자가 자신의 반응과 판단을 되새겨보며 텍스트로 돌아가 거듭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자유로운 해석을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앞선 두 가지 교육 원리인 ‘텍스트의 특성 및 의도 탐구로서의 수사 읽기’와 ‘텍스트와의 경쟁에 기반한 수사적 읽기’를 바탕으로 하여 한결음 더 나아간 단계이다.

해체적 읽기는 언어의 다원성에서 기인하며, 이를 해석하는 독자의 행위가 중요하다. 언어로 이루어진 소설은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세계를 모방하거나 이에 근거하여 무언가를 창조하는 가운데 모종의 의미를 드러낸다. 이때 문제는 언어가 지닌 불안정성이다. 데리다는 언어를 통해 객관적이고 고정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환상이라고 말한다. 즉, 기호와 의미 사이의 관계란 본질적으로 불안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객관

적이고 고정된 의미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기호는 항상 의미로, 의미는 다시 기호로 바뀌는 가운데, 궁극적인 의미나 기호에 도달할 수 없다(장경렬, 2016:57).

앞서 II. 2.에서 언급한 폴 드 만의 ‘독서 불가능성’이 이와 연결되는데, 한 언어적 텍스트를 “수사학적 의식을 가지고 읽음”으로써 문법적 주체의 “공허함”, 그리고 언어에 의해 암시되는, 언어와 언어 외적 실체의 일치라는 것이 허황된 것이라는 점이 드러난다. 그러나 이러한 읽기는 문법의 위위로 인해 끊임없이 방해받는다. 역으로, 텍스트가 지닌 의미의 안정성은 언어의 “수사성”에 의해 무한히 유보된다. “문학적 언어의 수사적 성격은 원초적인 오류의 가능성, 즉 끊임없이 등장하는, 기호와 실체 사이의 혼동을 촉발한다.” 텍스트는 발견될 수 있는 “차이”들을 가장하는 데 수사법을 이용함으로써 오류를 은폐하고, 읽기는 이 오류를 발견하지만, 그것을 언어의 문법적 모델에 따라 어떤 긍정적 인식으로 전환시키지는 못한다. 그리하여 “한 문학 텍스트의 수사적 형식에 대한 모든 물음은 필연적으로 자신이 진정으로 묻고 있는지의 여부도 모르는 수사적 질문이 될 수밖에 없다.” 드 만은 “언어는 약속하면서 실언한다.”라고 결론짓는다. 언어는 자신이 지칭하는 무엇을 의미한다는 약속을 수행적으로 만들어내지만 이 약속은 실언이다. 왜냐하면 언어 내에서만 그 약속이 지켜지기 때문이며(언어 밖에서는 어디에서도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는다.) 따라서 그것은 실패한 발화이다. 모든 발화가 실패한 발화라면, 이해, 읽기 행위도 동시에 오해, 오독이 된다. 그렇지만 읽기는 이러한 과정을 중단시키지 못한다. 읽기는 단지 그러한 실패, 그 과정의 신뢰할 수 없는 점을 의식할 뿐이며 끊임없이 저항에 부딪힌다(De Man, 2010; 최성만, 1998:233-238). 이처럼 언어 안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해와 독서 행위이지만 이 행위 자체는 의의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독자가 생산한 해석은 자신의 의지와 능동성이

담긴 결과물로서 의미를 지닌다.

V. 결론

소설 읽기에 수사학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은 소설 텍스트를 담화의 질서로 보고 독서 행위의 소통적 구도에 주목하여 학습독자가 적극적인 참여자로서 문학작품을 수용하는 것을 지향한다. 학습자는 소설의 수사적 읽기를 수행하면서 저자의 의도가 담긴 텍스트의 구조와 화자의 언술 방식에 대한 탐색을 통해 주관적·정서적 반응을 일으키고 언어 자질을 중심으로 자신의 소설 해석에 구체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확보하게 된다. 이는 서사 소통 상황에 참여하는 주체들을 상대로 하는 대화라고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독자는 텍스트의 설득에 대한 가치판단을 실천함으로써 비판적 태도를 함양할 수 있다.

소설의 수사적 읽기는 수사학과 해석학 및 해체론의 관계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 두 가지 의미를 지니는데 첫째, 소설 텍스트에 대한 ‘이해’가 ‘표현’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작품이 지닌 서사 전략으로서의 수사적 형식 탐구를 가리키며, 둘째, 언어로 구성된 소설 텍스트의 본래적 다의성에서 촉발되는 ‘독서 불가능성’을 고려한 읽기 행위 차원의 수사학적 태도를 뜻한다. 소설교육이 기대고 있는 서사학에서도 텍스트를 둘러싼 소통 구도에 대한 논의가 일정한 흐름으로 이어져오며 이는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반영되어 교육 내용을 이루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소설의 수사적 읽기의 방법으로 ‘텍스트의 특성 및 의도 탐구로서의 수사 읽기’, ‘텍스트와의 경쟁에 기반한 수사적 읽기’, ‘텍스트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해체적 읽기’의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아직 시론(試

論)의 성격이 강한 수사적 읽기의 방법은 구체적인 소설 작품의 분석과 학습독자의 읽기 수행 과정에 대한 파악을 통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소설교육의 장에서 실천될 수 있는 실질적 제안이 되어야 함과 동시에 학습자가 문학작품과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 획득한 소통 능력과 판단력을 자기 삶의 언어 행위와 사회적 맥락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이끄는 역할을 해야 한다.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 『국어과 교육과정』, 2012.(2009 개정 교육과정)
- 교육과학기술부, 『국어과 교육과정』, 2015.(2015 개정 교육과정)
- 권택영, 「내포 저자 논쟁과 나보코프의 『롤리타』」, 『미국소설』 15권 2호, 미국소설학회, 2008, pp.5-26.
- 김명균·신석호·박근우, 「서사학(narratology)에 있어서의 화자 이론에 대한 고찰」, 『논문집』 7권, 경북외국어테크노대학, 2001, pp.47-60.
- 김종구, 「플롯론·서사구조론의 전개양상과 소설시학」,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권,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1998, pp.163-186.
- 김중신 외, 『고등학교 국어 I』, 교학사, 2013.
- 김태철 외, 『중학교 국어 ④』, 비상교육, 2013.
- 남미영 외, 『중학교 국어 ③』, 교학사, 2013.
- 문선희·김은주·이삼형, 「작문 교육 관점에서 대화주의와 신수사학 비교 고찰」, 『국어교육학연구』 46권, 국어교육학회, 2013, pp.363-387.
- 박치완, 「미셸 메이에르의 철학적 수사학」, 『철학탐구』 25호, 중앙대 중앙철학연구소, 2009, pp.151-193.
- 우찬제, 「청중은 있는가? - 수사적 상황에서 ‘청중’의 존재 방식」,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9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5, pp.361-386.
- 우한용 외, 『고등학교 국어 I』, 비상교육, 2013.
- 이경순, 「서술의 윤리와 독자: 토니 모리슨의 『sula』」, 『미국학논집』 34권 1호, 2001, pp.75-97.
- 장경렬,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문학과지성사, 2016.
- 정기철, 「리퍼르의 해석학과 수사학」, 『해석학연구』 22호, 한국해석학회, 2008, pp.219-242.
- 정진석, 「소설교육에서 소통론의 실천 양상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국어교육학연구』 49권, 국어교육학회, 2014, pp.585-623.
- 최라영, 「서술커뮤니케이션 다이어그램 연구」, 『비교문학』 60집, 한국비교문화회, 2013, pp.59-90.
- 최성만, 「폴 드 만의 해체론적 수사학」, 『문예미학』 6권 1호, 문예미학회, 1999, pp.297-318.

- 최성만, 『폴 드 만의 해체주의적 읽기 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독일문학』 65권 1호, 한국독어독문학회, 1998, pp.230-259.
- 한철우 외, 『고등학교 국어 I』, 비상교육, 2013.
- Abbot, H. P., *The Cambridge introduction to narrative*, 2002.(우찬제 · 이소연 · 박상익 · 공성수 옮김, 『서사학 강의-이야기에 대한 모든 것』, 문학과지성사, 2010.)
- Booth, W. C., *(The) rhetoric of ficti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1.(최상규 옮김, 『소설의 수사학』, 예림기획, 1999.)
- Chatman, S. B., *Story and discourse-narrative structure in fiction and film*, Cornell University Press, 1978.(한용환 옮김, 『이야기와 담론: 영화와 소설의 서사구조』, 푸른사상, 2003.)
- Chatman, S. B., *Coming to terms : the rhetoric of narrative in fiction and film*, Cornell University Press, 1990.(한용환 · 강덕화 옮김, 『영화와 소설의 수사학』, 동국대학교출판부, 2001.)
- De Man, P., *Allegories of reading: figural language in Rousseau, Nietzsche, Rilke, and Proust*, Yale University Press, 1979.(이창남 옮김, 『독서의 알레고리』, 문학과지성사, 2010.)
- De Man, P., *The Resistance to Theory*,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6.(황성필 옮김, 『이론에 대한 저항』, 『이론에 대한 저항』, 동문선, 2008.)
- Gadamer, H.-G., *Wahrheit und methode : grundzüge einer philosophischen Hermeneutik*, Tübingen: Mohr, 1972.(임홍배 옮김, 『진리와 방법2』, 문학동네, 2012.)
- Herman, D., “Toward a transmedial narratology”, Ryan, M.-L.(Eds), *Narrative across media : the languages of storytelling*,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2004.(조애리 외 옮김, 『간(間)매체적 서사학을 향하여』, 『스토리텔링의 이론, 영화와 디지털을 만나다』, 한울아카데미, 2014.)
- McQuillan, M., *Paul de Man*, Routledge, 2005.(이창남 옮김, 『폴 드만과 탈구성적 텍스트』, 엘피, 2007.)
- Meyer, M., *Langage et littérature*,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92.(이영훈 · 진중화 옮김, 『언어와 문학-의미에 관한 시론』, 고려대출판부, 2004.)
- Meyer, M., *Questions de rhétorique: langage, raison et séduction*, Livre de

poche, 1993.(전성기 옮김, 『수사 문제-언어, 이성, 유희』, 고려대출판부, 2012.)

Ricoeur, P., *Interpretation Theory: Discourse and the Surplus of Meaning*, Texas Christian University Press, 1976.(김윤성 · 조현범 옮김, 『해석이론』, 서광사, 1998.)

Scholes, R. E., Kellogg, R. L. & Phelan, J., *(The)nature of narrative*, Oxford University Press, 1968.(임병권 옮김, 『서사문학의 본질』, 예림기획, 2007.)

Zappen, J. P., *The Rebirth of dialogue: Bakhtin, Socrates, and the rhetorical tradition*,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2004.

Abstract

A Study on the Education of Rhetorical Reading of Novel

Hong, In-young

This study focuses on the rhetorical aspects of novels. The purpose is to examine related theories and explore rhetorical reading education methods used with novels. The rhetorical approach to novel reading focuses on the communication structure of the act of reading by considering the novel text as the basis of the discourse and aims for the reader to accept the literary works as an active participant. The learner makes a subjective and emotional response upon researching the text containing the author's intention and the narrative method. The reader then establishes a concrete and valid basis for his or her interpretation, focusing on language qualities, while performing a rhetorical reading of the novel. This is a dialogue with the subjects participating in the narrative communication situation. In this process, the reader can cultivate a critical attitude towards the written material by practicing using value judgments on persuasive texts.

The rhetorical reading of a novel first requires an inquiry as to the rhetorical type, which regards the novel as a structure designed by the author's detailed strategy. The reader takes a critical point of view and considers the intention of the text through an aesthetic, emotional and ethical judgment process. Second, it is a rhetorical attitude of reading activity that aims open interpretation based on pluralism of novel text as art of language.

This study investigated rhetoric, hermeneutics, and disintegration as the theoretical basis and explored the rhetorical approach of narratology which constitutes the basis of novel education. Based on this, there are three education methods of rhetorical reading of the novel: 'reading the rhetoric as a character of the text and exploring the intention of the text', 'rhetorical reading based on competition with text', and 'deconstructive reading beyond the

unreadability’.

Key Word: Novel Education, Rhetorical Reading of Novel, Narrator, Reader,
Narrative Communication, Intention of Text, Contest with Text,
Unreadability

홍인영

소속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박사과정 수료

전자우편 : reality52@snu.ac.kr

이 논문은 2018년 5월 10일 투고되어 2018년 6월 3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8년 6월 7일 게재 확정됨.
--